

외요세평



**정성국**  
정성국치과의원 원장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장

몇 년째 집에 틀어박혀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창문은 커튼으로 쳐져 방안은 어둡고 쓰레기 더미에 뒤덮여 있다.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어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고, 엄마·아빠 얼굴 보는 것마저 회피한다.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과도 골잡 어울렸던 거 같은데 대학 졸업 후 연달아 취업에 실패를 하고, 취업을 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부모는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보고 왜 그런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마냥 그대로인 것 같아 어찌할 수 없어 망연자실한 상태다. 그렇다고 낮부끄럽다고 주변에 이야기도 못한다.

광주 1만 2,100여명 추정

“은둔형 외톨이”. 영화나 뉴스 등을 통해 그려지는 한 모습이다. 한때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소개되며, 일본 특유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IMF 경제위기

코로나 시대 은둔형 외톨이

이후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거 정신병 아니야?’ 하고 치부해버리며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려 하지만 가정 및 학교폭력, 학교 및 직장 부적응, 취업실패와 지나친 경쟁사회 등의 이유로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율 산출 방식(인구의 0.9%)을 활용해 만 9세 이상 인구에 적용시, 광주광역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략 1만 2,10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2019년 신수정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했다. 이후 부산과 광주 동구 등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조례에 기초해 광주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 생활 1년 미만은 전체 응답자의 46.1%인 반면, 1년 이상은 53.9%로 장기화가 될수록 더욱 은둔 생활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은둔 생활의 계기는 대인관계나 우울증 등

의 문제가 전체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이나 실직 등 일자리 관련 문제로 전체의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생활의 시작은 청소년기(18세 이하) 15.1%, 청년기(19-39세) 73.4%, 장년기(40세 이상) 11.4%로 청소년기와 더불어 청년기의 은둔 생활 시작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기타 여러 조사 결과 센터 설립과 전담 상담사 양성 및 운영, 비대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취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제도 보완 대책 마련을

은둔형 외톨이는 코로나 시대를 접하며 급속히 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과 비접촉이 일상화된 시기에 우울과 사회적 고립의 환경이 은둔을 더욱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신질환, 개인의 무능력과 경쟁에서 뒤쳐진 패배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로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사회에서 서히 적응하며 일일으로서 역할을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062-511-0522)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기고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교수님은 MBTI가 뭔가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E 같아요 E!”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범농협 신규직원 대상 ‘뉴리더 농협가치 향상교육’ 수강생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다. 2020-2021년 입사한 신규직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보니 수강생 거의 대부분이 MZ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요즘 MBTI가 대세다. 특히 신세대라 불리는 MZ세대들엔 더욱 그렇다. 실제 MZ세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조차 ‘그런데 MBTI는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MBTI를 통해 만나는 사람

MZ세대와의 소통, ‘MBTI’ 이해로부터

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비슷한 유형들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무엇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고향이 어디인지 등 마치 면접관처럼 개인의 인적사항을 궁금해 하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판판인 셈이다.  
그런데 이제 MBTI가 MZ세대의 유행을 넘어 점차 사회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모기업 채용과정에서 특정 MBTI 유형을 입사조건으로 내세운 일도 있었으니 말 다했다.  
MBTI는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의 심리유형이론에 근거를 둔 개인성격유형검사다. 사람들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 저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지만 어떤 공통된 특징에 따라 묶을 수 있다는 전제에 따라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한다.  
MBTI는 개인마다 태도와 인식, 판단 기능에서 각자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4가지 선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가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외향-내향(E-I) 지표,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직관(S-N) 지표, 수집한 정보

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고-감정(T-F) 지표,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실생활에서 드러난 생활 양식을 보여 주는 판단-인식(J-P) 지표다.  
이 4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하며,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MBTI가 과학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MZ세대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MBTI에 대해서 기성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 ‘판대’라고 불리는 MZ세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더욱 그렇다. 물론 어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MBTI유형에 가두고 규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MBTI는 개인의 선호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판대’ 들어가 지금부터 MBTI에 관심 가져 보는 것은 어떤가. MZ세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독자광장

최근 신문지면을 통해 은행 창구 직원들의 재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표창을 수상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단순 금융고객을 넘어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고 주의깊게 살펴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경찰 도착 전 송금피해를 미리 막아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전국적으로 3만900여건에 피해 금액도 7,700억원이 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기 범죄 예방에 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출현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전 행동을 잘 살펴보면 이렇다. 70대 노인이 누군가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은행 창구 직원의 돈을 찾는 용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적극 해지를 요구한다. 은행원의 재치로 송금 피해를 막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금융 사기 주변 관심 필요하다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에 걸린 것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도 서민집회 사범인 보이스피싱 근절에 역점을 두고 홍보와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명심할 것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은행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

는 만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불일이다. 또한 현금인출기를 통해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거나 보이스피싱 관련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경우 즉시 은행 창구의 도움을 받아 송금을 중단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찰에도 즉시 신고해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은행에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사회현상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사기범죄에 있어 예방과 주의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박철홍</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김성남</b>		편집국장 <b>姜露秀</b>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 주민 중심으로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까지 2년 정도 남겨둔 가운데,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관련 재논의의 관심을 끌었다. 광주시는 지난 주말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협의했으나 ‘원점 재검토’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5개 구청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현지 주민과 선거구 정치인의 이해 개입이 최대 걸림돌이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하자고 하면 자치구 균형발전과 불안정한 선거구 정상화란 총론에 격하게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편입되는 지역 또는 선거구에 대해 강한 반론과 이견을 표출함으로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는 항상 흐지부지, 지지부진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시작돼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3

가지 방안이 도출됐고 2020년 11월 준비기 집단이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결국 좌초됐다.  
조정되는 지역 주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해당 지역구 정치인도 거부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여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경계 조정이 이해가 얼것 같아도 쿠만 달자 핫이슈였던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은 언감생심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지역민의 이해와 이를 기초로 활동하는 의원들이 대승적인 합의에 이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케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까지 다소 긴 시간이 남은 만큼 이번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지역민과 정치인의 속마음이 절대 양보 불가란 원칙을 유지하는 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정치를 위한 길인지 당사자들은 잘 헤아리길 바란다.

여수박람회 10년, 자축하고 있지만

여수를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알린 세계박람회가 개최 10년을 맞았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지난 22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싱어게인 여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10주년을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개최 10년이 지난 박람회장의 현실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당장 박람회장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시설은 만성적으로 유지조차 버겁다. 주제관은 2020년 6월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고, 박람회장의 상징적인 빅오는 지난해 12월이 마지막 쇼였다.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도 고장난지 오래다. 박람회 정신 계승을 위한 여수프로젝트도 멈춰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여수국제아카데미는 2019년 48명의 졸업생 배출이 전부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장기표류하고 있는 사후활용 방안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민간 자본 유치와 공공 개발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해양수산부가 2020년 실시한 공공개발 재무타당성 용역에서 ‘양호’하다는 결

과가 나오면서 공공개발로 가다가 잡혔다.  
이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사후활용 주제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는 연간 관광객 1,000만명에 달하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한 사후활용 탓에 여전히 ‘절반의 성공’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지난 10년 간 사후활용을 두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가 시급한 이유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실익없는 공방을 끝내고 여수광양민들의 공동성상, 기후변화대응 등 박람회 정신 구현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유명가수를 초청해 벌이는 자축이 전부는 아니다.

광주 배구계 ‘새바람’ 기대

기지사첩



**조혜원**  
문화체육부 기자

광주 연고 프로스포츠인 축구·야구·배구가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배구 여자부 7번째 팀으로 뛰어난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첫 시즌을 마쳤다. 두 번째 시즌은 ‘막내’ 티를 벗겠다며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분주한 비시즌을 보내고 있어 기대가 크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였던 광주에 여자배구팀이 생기고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광주의 체육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배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선대와 유소년 배구팀을 운영키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조선대와 함께 업무협약을 갖고 유소년 배구팀 운영 첫발을 내디뎠다.  
창단 당시 장매투 페퍼저축은행 구단주는 “다른 팀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할 정도로 최고의

훈련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겠다. 아울러 연고지 광주·호남 지역 초·중·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배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당찬 포부는 2022년 고스란히 모두 그대로 시행됐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배구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광주 유소년 클럽운영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5월 14-15일 제1회 SI 페퍼스배 유소년배구대회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개최했다. 조선대에는 배구단 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이번 MOU협약을 통해 페퍼저축은행 광주 유소년배구팀의 운영 및 흥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과 체육관을 제공키로 했다. 조선대와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배구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흥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유소년 배구팀 운영과 흥경기 인적자원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페퍼저축은행의 유소년 배구를 경험한 학생 중에서 엘리트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페퍼저축은행, 나아가 여자배구 팬들이 될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이 지역 배구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지역의 배구 저변 확대 및 유소년배구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